

한국어 중·고급교재의 현황과 과제

청도대학 염광호

摘要：本文通过比较目前国内广泛使用的韩国语中高级精读教材的各种版本，分析每个教材的内容安排、语法知识、练习题制作等问题，探讨适合国内的韩国语中高级精读教材。

1. 들어가기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 중·고급교재라고 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북경대학의 <표준한국어> (1·2·3)가 있는데 이중의 2·3 권이 중·고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연변대학에서 편찬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에서 연변대학에서 최희수 등이 편찬한 <중급한국어>(상·하)와 <고급 한국어>(상·하)를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요녕민족출판사에서 2007년에 <중급한국어>(상·하)를 수정 출판했는데 이를 <신편중급한국어>(상·하)라 이름 짓는다. 2009년에 연변대학에서 <기초한국어>(1-4)를 펴냈는데 이중에 3·4 권이 중·고급에 해당된다고 본다.

본문에서는 연변대학에서 편찬한 <중급한국어> (상·하) <고급한국어>(상·하), <신편중급한국어>(상·하)와 연변대의<기초한국어>(3·4), 북경대 이선한 등의 <한국어>(2·3)를 전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또 한국 교재들과도 대조하여 그 차이점과 원인을 찾아보려 한다. 2007년에 한국의 연세대학에서 편찬한 <한국어교정>(1-6)이 세계도서출판공사에서 번역 출판되었는데 이는 한국교재가 처음으로 중국에 번역출판 된 것이다. 2009년까지 6차 인쇄한 것으로 보아 꽤 환영을 받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한국의 연세 대(3·4·5·6), 경희대(중급 1·2), 서강대(3A.B 4A.B 5 A.B 6 A.B)의 세 교재를 가지고 중국교재와 대비 분석을 하려고 한다.

1.1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중국에서 한국어교재를 어떻게 편찬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교재를 써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 아직까지도 통일적인 인식이 없다. 한국에서는 백봉자와 같이 “한국어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담화중심의 화용론적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한국어교육학계의 주된 견해로 되고 있다. 물론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화용론적 교수방법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즐겨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이 방법이 유일한 교수 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지역적이고 사회적인 특정에 맞는 한국어교육방법을 모색하고 또 이에 알맞은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중국적인 특색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2 중국 한국어 학습자들의 특징

1.2.1 중국의 한국어학습자들은 외국어학습에서 어려서부터 문법연습과 단어암기 위주의 주입식교육에 습관 되어 왔다. 중국의 대학입시제도는 그 경쟁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치열하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울 때 (물론 다른 어종을 배웠다면 일본어, 러시아어 등도 약간 있지만 그 비례가 아주 적다.) <의사소통>이 목적인 것보다 <시험점수>를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도 무턱대고 암기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행동주의 언어교육방식에 아마 더 어울리고 익숙한 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우선 무턱대고 단어를 암기하고 높은 소리로 과문을 낭독하는 것은 중국학생들의 독특한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1.2.2 중국의 한국어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비슷한 유교문화를 위주로 하는 한국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감대가 형성된다. 게다가 한국어의 대량적인 한자어휘는 같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으로서 더구나 친 절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어휘 장악에서 상당한 편리를 얻고 있다.

1.2.3 중국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한국어를 접촉하고 있으며 또 평시에 한국인 또는 한국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아주 적다. 한국에서처럼 화용론적인 교육방법은 중국사회에서 진행되기 어렵다. 즉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마련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유학생 또는 한국인들과의 교류도 그리 활발히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특성에 맞는 교재란 어떻게 되어야겠는가? 필자는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발한 이른바 “답화 위주”의 교수방법도 있고 “문법이해와 연습을 반복”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결합한 교재여야 한다고 본다. 필자와 비슷한 관점이 역시 중국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재들에서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2. 중국의 한국어 중·고급교재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한국 교재와의 비교

2.1 과문내용 분석¹

2.1.1 중국 한국어교재 내용 비교

	신편 중급	중·고급	기초한국어	북경대
풍속·민속학	1 김치 2 추석 3 한국풍속과 예절	1 국물 맛의 음식 문화 2 한국 풍속과 예절 3 민속 놀이 몇 가지		1 한국 음식 2 명절 3 가을걷이와 축제

¹ 과문의 내용은 한국의 도서 십진분류법(KDC)을 따랐다.

		4 설		
사회학. 사회문제		5 한국의 가족 제도 6 광고와 대중문화 7 멋과 한국인의 삶 8 정보화 시대와 독서 9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10 정보화 사회와 통계학	1 휴대폰 문화 2 디카 세상	4 극장 5 한국의 아름다움 6 영화 이야기 7 오빠 부대 8 정보화 시대 9 직업
역사(인물)	4 훈장을 마다한 퀴리 부부 5 세종대왕과 한글 6 한 석봉과 어머니 7 이 태조와 무학 8 한 석봉과 어머니 9 세종대왕과 한글	11 이 태조와 무학 12 한 석봉과 어머니 13 세종대왕과 한글 14 잊지 못할 윤동주	3 효녀 심청 4 한 석봉과 어머니	10 단군 이야기
언어	10 인터넷 언어폭력	15 외래어에 대한 생각	5 생활과 언어 6 한국어의 특징 7 한국의 속담 8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	11 물건 세기 12 뽀뽀와 콜라 13 속담의 지혜

문학	11 아버지의 목발 12 장터의 여인 13 크리스마스의 선물 14 동백꽃 (1) 15 동백꽃 (2)	16 뒷모습 17 동백꽃(1) 18 동백꽃(2) 19 별 20 사랑손님과 어머니 21 수난 이대 22 마지막 수업 23 콩이지 24 우동 한 그릇 25 소나기 26 저항으로서의 글쓰기	9 백두산 미인송에 얽힌 이야기	14 노래와 시 15 수필
경제학		27 국가 간의 경제 거래와 협력		16 광고 17 교통 18 관광 19 여름 방학 20 경제 활동 21 한얼이의중국 여행
오락. 운동		28 다이어트		22 취미 23 운동 24 독서

윤리학,도덕철학	16 엉뚱한 친절	29 행복 찾기	10 배우기 위한	25 선물
	17 유산 때문에	30 눈에 비친	인내	26 친구 사이
	18 일하는 행복	자비심	11 멋있는 사람	
	19 떠남, 그리고	31 내 마음의 서울	12 두 가족	
	버림	32 사랑 때문에	13 행복한 책	
	20 우리가 소망하는	고민하는 사람들	읽기	
	것	33 전화 한 통화	14 사랑 때문에	
	21 마지막 5분	34 410 강의실	고민하는 사람들	
	22 독서의 방법	35 어느 친구	15 시간은	
	23 꽃도 새도 내	이야기	황금이다	
	가슴으로	36 성실한 삶	16 철학 에세이	
	24 인생은 살만 한	37 독서의 방법	17 아름다움은	
	것이란다.	38 꽃도 새도 내	무죄	
		가슴으로	18 대학은 어떤	
		39 인생은 살 만한	곳인가?	
		것이란다.	19 언덕 위의 집	
		40 마지막 5분	20 군자란	
		41 우리가	21 내 마음의	
		소망하는 것	희망등	
		42 언덕 위의 집	22 촌스러운	
		43 할머니의 가위	아나운서	
		44 나무에 대한	23 아버지의	
		예의	작업복	
			24 축복받은 성격	
			25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26 에프롱을	
			모자로 쓰기	
			27 선생님, 더워요	
			28 세월	
		29 일레인 이야기		
		30 어떤 정		

지 학	25 제주도 26 산딸기맛갈스러운 개성에서	45 제주도 46 산딸기 맛갈스런 개성에서 47 조선반도	31 제주도	
식 물 학	27 무궁화	48 무궁화		27 단풍
동 물 학	28 자연의 맥박 철새들의 이동	49 자연의 맥박 철새들의 이동 50 모기		
공학. 공업일반 (환경공학)	29 환경 문제 30 건강과 공해	51 건강과 공해 52 환경 문제와 환경 보존 53 신록예찬		28 날씨 이야기 29 환경과 인간
가정학 및 가정생활		54 음식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32 숲	
순수과학		55 도량형 56 날씨와 생활		30 돌리와 영롱이

중국의 교재들에서 보면 <신편중급한국어>(상·하) 에서 모두 30 과목인데 풍속. 민속학 (3)10% , 사회학. 사회문제 (0), 역사(인물) (6)20%, 언어 (1)3.3%, 문학 (5)16.7%, 경제학(0), 오락. 운동(0), 윤리학. 도덕철학(9)30%, 지 학(2)6.7%, 식 물 학(1)3.3%, 동 물 학(1)3.3%, 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2)6.7%, 가정학 및 가정생활(0), 순수과학(0)이다. 그런데 <신편중급> (상·하)에서 “한 석봉과 어머니” “세종대왕과 한글”을 중복한 실수를 범하였다. 이것은 아마 상권만 개편하고 하권을 그대로 펴내면서 주의하지 못한 착오인 것 같다.

연변대<중·고급한국어>는 모두 56 과목인데 풍속. 민속학 (4)7.1% , 사회학. 사회문제 (6)10.7%, 역사(인물) (4)7.1%, 언어 (1)1.7%, 문학 (11)19.6%, 경제학(1)1.7%, 오락. 운동(1)1.7%, 윤리학. 도덕철학(16)28.6%, 지 학(3)5.4%, 식 물 학(1)1.7%, 동 물 학(2)3.6%, 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3)5.4%, 가정학 및 가정생활(1)1.7%, 순수과학(2)3.6%이다. 문학과 윤리. 철학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은 감을 준다.

연변대<기초한국어>(3·4) 에서 모두 32 과목인데 풍속. 민속학 (0), 사회학. 사회문제 (2)6.3%, 역사(인물) (2)6.3%, 언어 (4)12.5%, 문학 (1)3.1%, 경제학(0), 오락. 운동(0), 윤리학. 도덕철학(21)65.6%, 지 학(1)3.1%, 식 물 학(0), 동 물 학(0), 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0), 가정학 및 가정생활(1)3.1%, 순수과학(0)이다. 과거의 문학작품을 대폭 줄인 반면 역시윤리. 철학 내용을 많이 넣었다. 그리고 연변의 향토전설 즉 "장백 미인송 이야기"를 넣은 점이 특색이 있다.

북경대<한국어>(2·3)에서 모두 30 과목인데 풍속. 민속학 (3)10% , 사회학. 사회문제 (6)20%, 역사(인물) (1)3.3%, 언어 (3)10%, 문학 (2)6.7%, 경제학(6)20%, 오락. 운동(3)10%, 윤리학. 도덕철학(2)6.7%, 지 학(0), 식 물 학(1)3.3%, 동 물 학(0), 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2)6.7%, 가정학 및 가정생활(0), 순수과학(1)3.3%이다.

한국의 교재 편찬 방법을 따라 회화와 산문을 같이 실었으며 내용도 사회내용과 경제에 관한 것, 그리고 생활언어를 위주로 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개내용도 한편 넣은 점이 주목된다.

2.1.2 한국 한국어교재 내용 비교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풍속. 민속학	1 미풍양속 2 명절과 풍습 3 한국의 풍습 4 민속 5 민간 신앙	1 음식과 요리 2 돌잔치 3 민속과 삶	1 풍습
사회학. 사회문제	6 사회의 이모저모 7 세대 차이 8 한국인의 생활 9 한국의 가족제도 10 고향 11 사랑 12 우정	4 대중문화 5 문화와 예술 6 직장 생활 7 정보 8 매체와 사회 9 개인과 가정	2 대중문화 3 사회

	13 현대인의 생활 14 토론		
역사(인물)	15 역사속의 인물	10 옛날이야기 11 역사와 유래	4 한국 현대사 5 인물
한국어	16 하숙 생활 17 바쁜 하루 18 오래간만입니다. 19 주말 이야기 20 선생님 댁 방문 21 부탁드립니다. 22 실수와 사과 23 세월이 참 빠르군요! 24 이것 참 큰일났네! 25 아직도 그런걸 믿으세요? 26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27 그건 다 옛날이야기지요. 28 신문 보고 알았어요.	12 한글 13 언어 학습 14 이야기와 글 15 편지 16 발표 17 첫인상 18 이사 19 분실	6 경험 말하기 7 조언하기 8 설명하기 9 발표하기 10 고민 말하기 11 조언하기 12 길 설명하기 13 확인하기 14 주장하기 15 반대하기 16 설득하기 17 감상하기 18 의견 말하기 19 공감하기 20 가정하기 21 정의하기 22 정보 전달하기 23 질책하기 24 변명하기 25 서술하기 26 추측하기 27 인용하기

			28 설명하기 29 감상하기 30 묘사하기 31 서술하기 32 소개 33 학교생활 34 집 초대와 방문 35 외모와 성격 36 문제 37 일 38 음식 39 건강 40 쇼핑 41 분실 42 실수와 변명 43 추억 44 후회와 계획 45 사자성어와 속담 46 한국인의 대화법 47 호칭과 몸짓언어
문학			48 전래 동화
경제학	29 예금을 하겠어요.	20 환불 21 여행 22 경제와 생활 23 날씨와 생활	49 공공 생활 50 날씨와 여행
의학	30 건강이 제일 31 건강이 제일이다.	24 건강 25 건강과 식사	

오락. 운동		26 취미 27 운동과 오락	
윤리학. 도덕철학	32 일과 보람 33 성격	28 철학과 윤리	51 성공적인 삶 52 성격 유형
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		29 환경 30 환경 31 기후와 여행	
교육학	34 교육	32 교육과 미래	
지 학			53 서울의 명소
순수과학		33 과학과 기술	54 과학 상식

<연세대>에서 모두 34 과목인데 풍속.민속학 (5)14.7% , 사회학.사회문제 (9)26.5%, 역사(인물) (1) 2.9%, 언어 (13)38.2%, 문학 (0), 경제학(1)2.9%,의 학(2)5.9%,오락.운동(0), 윤리학.도덕철학(2)5.9%,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0), 교육학(1)2.9%, 지 학(0),순수과학(1)2.9%이다. 연세대는 상용대화, 사회생활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은 점이 특색이다.

<경희대>에서 모두 33 과목인데 풍속. 민속학 (3)9% , 사회학. 사회문제 (6)18.2%, 역사(인물) (2) 6%, 언어 (8)24.2%, 문학 (0), 경제학(4)12.1%, 의학(2)6%, 오락.운동(2)6%, 윤리학. 도덕철학(1) 3%, 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3)9%, 교육학(1)3%, 지 학(0), 순수과학(1) 3%이다. 경희대는 상용 대화와 경제와 관계되는 내용이 특별히 많다.

<서강대>에서 모두 54 과목인데 풍속. 민속학 (1)1.9% , 사회학. 사회문제 (2)3.7%, 역사(인물) (1) 1.9%, 언어 (43)79.6%, 문학 (1)1.9%, 경제학(2)3.7%, 의학(0), 오락.운동(0), 윤리학. 도덕철학(2) 3.7%, 공학. 공업일반(환경공학)(0), 교육학(0), 지 학(1)1.9%, 순수과학(1) 1.9%이다. 서강대는 상용 대화와 여러 가지 언어 환경에서의 부동한 표달능력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편찬했다.

2.1.3 한국 한국어교재 장르 비교

	신편 중급	중·고급	기초한국어	북경대
설명문	4	10	5	20
소 설	5	10		
수 필	9	17	21	2
의론문	4	13	2	7

기행	2	2	1	
르포르타주(실화)	6	4	3	1
합계	30	56	32	30

장르 별로 나누어 보면 <신편중급>과 연변대<중·고급>은 산문 위주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필을 많이 선택했다. 그리고 단편소설도 여러 편을 넣었다. 고급단계에서 (일반적으로 6-7 학기) 문학작품 이를테면 단편소설도 꽤 많다. “동백꽃(1) 동백꽃(2) 별, 사랑손님과 어머니, 수난 이대, 소나기와 같은 작품을 강의해 보면 작가소개, 시대배경, 작품분석, 심지어 인물형상분석 등까지 하다보면 어쩐지 문학작품강의가 되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고 내용에서 또 상당한 분량의 윤리, 도덕내용 이를 테면 “인생은 살 만한 것이란다. “ 마지막 5 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언덕 위의 집” “할머니의 가위” 등이 너무 많다. 이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사회지식을 배우고 표달능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마지막 수업” (프랑스작품), “콩이치” (중국작품), “우동 한 그릇 ”(일본작품) 등과 같은 문학작품을 한국어교재에서 취급하는 것이 한국의 원작을 취급하는 것보다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같은 값이면 한국의 작품을 선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 한층 한국의 문학에 대해 요해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 된다.

북경대에서는 대화 위주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과 맞는 산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하면 과문 내용 이해와 표달능력 제고에는 좀 효과가 낮을 지 모르겠지만 고급 단계에 가서 계속 생활 용어 위주로 하다보면 문학어, 사회지식, 역사 인물 등을 요해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편찬한 교재는 회화체 위주의 교재이므로 약간의 산문체를 넣었지만 설명문 또는 의론문에 그친다.

3. 중국의 한국어 중·고급 교재의 어휘·문법·교재구성에 대한 검토

3.1 어휘·문법 항목 비교

	신편중급한국어	연변대 중급	연변대 고급	기초한국어	북경대
단어 수	2208(상) 1593(하)	1134(상) 1593(하)	2073 (상) 1467 (하)	1100 좌우(상) 1100 좌우(2) (하)	2360 좌우 2000 좌우 (3)
문법 (조사, 어미)	112(상) 95(하)	148 (상) 95 (하)	101(상)	125(3) 78 (4)	215 (2) 165 (3)

3.2 교재구성 비교

연변대의 <중고급>이나 <기초한국어>이나 그 교재를 만든 구성은 기본상 같다. 그러므로 오래 쓰인 <중급한국어>와 새로 나온 <기초 한국어>, 그리고 북경대의 <한국어>에서 각각 대조해 보자.

3.2.1 연변대 중급(상. 하) 교재 구성

중급 (상)	중급 (하)
김치	1. 제주도
1) 词的形态变化 (1) 스 (사잇소리) (2) 담가/따라서 (3) 버무려/알려져 (4) 겨우내 2) 词语例解 (1) 뿐만 아니라 (2) 와/과 같은 3) 语法例解(1) 라고/이라고 (2) 로도/으로도 (3) 에도 (4) 아서/어서/여서 4) 韩国语知识- 词的结构 (1) 어근 (2) 접사 (3) 어간 5) 练习 (1) 参照词的形态变化, 表示下列 6) 词语原形。 (2) 用下列词语造句。 (3) 在示例中选择适当的词语填空。 (4) 在示例中选择适当的助词, 语尾填空。 (5) 仿照示例, 用下列词语造句。 (6) 仿照示例, 选择适合的语尾填空, 并	1) 语法与语词用法说明 (1) -기가 (2) -다고 (3) - 과는 (4) -다는/ㄴ다는/는다는 (5) - 라 하면 (6) -답- (7) 자리 练习 1.아래의 단어로 단문을 지으라. 2.알맞은 조사나 어미들을 있는 대로 고르라. 3.알맞은 단어들을 있는 대로 고르라. 4.아래에 주어진 말들을 넣어 짧은 글을 쓰라. 5.다음의 문장들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라. 6.다음 문장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틀린 곳은 밑줄을 긋고 고치라. 7.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들을 있는 대로 찾으라. 8.아래의 문장들을 보기와 같이 고치라. 9.아래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라. 10.다음의 물음에 대답하라. (과문분석) 11. 아래의 글을 읽고 요구에 따라 대답하라.

<p>指出差异。</p> <p>(7) 仿照示例, 找出正确地连接两个短语的句子划“○”。</p> <p>(8) 改错。</p> <p>(9) 把下列句子译成汉语。</p> <p>(10) 把下列句子译成韩国语。</p> <p>读课文后回答下列问题。</p> <p>7) 阅读비빔밥</p> <p>8) 补充词汇</p>	
--	--

3.2.2 연변대 고급 (상. 하)

고급 (상)	고급 (하)
마지막 수업	설
<p>1.문법과 단어 사용 설명</p> <p>1) -려는데</p> <p>2) -르 뻔 하다(관용구)</p> <p>3) -던가 (종결어미)</p> <p>4) -곤(축약형태)</p> <p>5) -느라 (어미)</p> <p>2.알아 돕시다.</p> <p>1) 문장성분</p> <p>2) 주어부와 서술부</p> <p>연습</p> <p>1) 아래의 단어들로 단문을 지으라.</p> <p>2) 알맞은 조사나 어미들을 써넣으라.</p> <p>3) 알맞은 단어를 고르라.</p> <p>4) 아래의 말과 뜻이 반대되는 말을 고르라.</p> <p>5) 아래의 말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라.</p> <p>6)다음의 문장들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라.</p>	<p>연습</p> <p>1.괄호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라.</p> <p>2.다음의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p> <p>3.보기와 같이 다음의 여러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 놓으라.</p> <p>보기: 설이 가까워 온다. 어머니는 가족들의 새 옷을 준비한다. 정초 음식 차리기를 서두르셨다. 설이 가까워 오면 어머니는 가족들의 새 옷을 준비하고 정초 음식 차리기를 서두르셨다.</p> <p>4.아래의 문장을 순서에 맞게 연결 한 것을 고르라.</p> <p>5.다음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고쳐 보라.</p> <p>6.이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답하라. (과문분석)</p> <p>7.아래의시를 읽고 요구대로 하라.</p> <p>8.아래의 글을 번역하라. (중역한)</p>

<p>7) 다음 각 문장들에서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선택하라.</p> <p>8) 아래의 문장들을 보기와 같이 고치라.</p> <p>보기: 아멜 선생은 화를 내시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p> <p>아멜 선생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p> <p>9) 아래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라.</p> <p>10)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라.</p> <p>(과문분석)</p> <p>11) 다음의 제목을 참조하여 글을 지어보라.</p> <p>읽고 이해하기</p>	
---	--

3.2.3 연변대 기초한국어와 북경대 한국어

기초한국어	북경대 한국어
휴대폰문화	정보화시대

<p>语法解说</p> <p>1.-니 다고/는 다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2.-르/을 무렵</p> <p>3.-르/을 즈음</p> <p>4.-뿐만 아니라</p> <p>5.-기 짝이 없다</p> <p>6.-는 데도 불구하고</p> <p>词语与用法说明</p> <p>1. 빠지다</p> <p>2. 산산조각</p> <p>3. 시도 때도 없이</p> <p>4. 아랑곳 하다</p> <p>练习</p> <p>1. 괄호 안에 알맞은 조사나 어미를 써넣으십시오.</p> <p>2.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예문을 만드십시오.</p> <p>3. 다음의 관용어를 알맞은 곳에 넣으십시오.</p> <p>4. 두 문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p> <p>5.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십시오.</p> <p>6. 다음의 문장을 번역하십시오.</p> <p>7. 본문의 내용에 따라 물음에 대답하십시오.</p> <p>8. 글짓기</p> <p>9. 열독과 이해</p>	<p>课文生词</p> <p>发音</p> <p>词汇活用</p> <p>1. 안 2. 끼치다 3. 더 4. 참 5. 홍수</p> <p>语法与惯用型</p> <p>1. 건가요</p> <p>2. 말이다, -다는 말이다</p> <p>3. -었-</p> <p>4. -게 되다</p> <p>5. -라도/-이라도</p> <p>6. -와 관련되다/과 관련되다</p> <p>练习</p> <p>1. 根据课文内容, 回答下列问题。</p> <p>2. 根据所提示的内容, 完成下列句子。(-게 되다)</p> <p>3. 按要求完成下列句子。(-건가요)</p> <p>4. 用补助词--라도/-이라도连接下列句子。</p> <p>5. 仿照例句, 用先语末语尾-었-改写下列句子。</p> <p>6. 根据所给的内容, 完成下列对话。</p> <p>7. 选择适当的词或词组填空。</p> <p>8. 将下列词或词组连接成句子。</p> <p>9. 用下列词或惯用型造句。</p> <p>10. 用括号里所给的助词、惯用型及补助词连接句子, 并翻译成汉语。</p> <p>11. 进入韩国互联网, 找出一篇 200 字左右的报道, 并将其翻译成汉语。</p> <p>12. _____ 以“나의 _____ 인터넷 친구”为题写一篇 200 字左右的文章。</p> <p>13. 把下面一段话翻译成韩国语。</p>
---	--

3.2.4 한국의 교재 구성 비교

경희대	연세대	서강대
-----	-----	-----

제 1 과 첫인상	제 1 과 대중 문화	제 1 과 소개
<p>교재 구성</p> <p>기능: *인물 묘사하기</p> <p>*성격 설명하기</p> <p>*친구 소개하기</p> <p>문법: *-느라고, -(으)느 지, -게 되다, -(ㄴ/는)다면, -에 대해(서), -(으)며, -게, (마치) 처럼, - 적, -아/어 가다/오다.</p> <p>발음: * -/ㄱ</p> <p>듣기 활동 내용:</p> <p>* 입학 면접</p> <p>* 면접 시 주의 사항</p> <p>* 관상과 운명</p> <p>읽기 활동 내용:</p> <p>*우리 반 친구들</p> <p>* 면접 용령</p> <p>쓰기 활동 내용:</p> <p>* 첫인상</p> <p>*고쳐 쓴 후 글 완성하기</p> <p>한국 문화: 한국인의 별명</p>	<p>교재 구성</p> <p>주제: * 유행</p> <p>* 영화</p> <p>* 대중가요</p> <p>* 고전 소설</p> <p>문법/표현:</p> <p>* 인용 표현의 준말</p> <p>* 주장 동의의 근거를 말할 때</p> <p>*인터뷰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p> <p>*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p> <p>어휘/발음:</p> <p>* 영화와 노래 관련 어휘</p> <p>* 글의 종류</p> <p>* ‘ㄴ’의 발음</p> <p>듣기:</p> <p>*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3인 대화</p> <p>* 영화 배우 인터뷰</p> <p>읽기:</p> <p>* 대중가요의 생명력</p> <p>* 여러 장르의 춘향전</p> <p>쓰기:</p> <p>* 짧은 글 완성하기</p> <p>* 주어진 단어로 문장 쓰기</p> <p>* 개요에 따라 줄거리 쓰기</p>	<p>문법: -은 지(시간) 됐다 -인데</p> <p>대화: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기 새로 온 사람 소개하기</p> <p>과제: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p> <p>듣고 말하기: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p> <p>읽고 말하기: 저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p> <p>단어 표현 정리:</p> <p>많이 도와 주세요.</p> <p>모르는 것이 많습니다.</p> <p>반갑습니다.</p> <p>발음: 음료수</p> <p>동료</p> <p>종로</p>

	* 이야기 마무리하기 말하기: *표시한 항목을 활용하여 말하기 * 보편 문화와 특수 문화 구분하기 * 문화 상품 홍보하기	
--	--	--

3.3.1 중국의 교재들의 구성에서 보면 연변대의 교재는 문법연습위주와 단어활용, 문장고치기, 문장 잇기 그리고 번역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북경대의 교재가 좀 특색이 있게 하느라 노력했다. 북경대에서는 문법 훈련을 주어진 문장 안에서 많이 하게 했다. 역시 번역연습을 중시했으며 또한 쓰기 훈련도 시대 조류에 맞게 인터넷 활용과 그 번역을 연계시키는 등과 같이 잘 안배했다.

3.3.2 한국의 교재는 본래 종합한국어교재로 편찬했기 때문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동시에 하도록 안배했으며 한국의 문화 소개도 있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집중해서 한 학기 10 주씩 약 1 년간 배우는 어학당 경우에는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 되지만 중국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4 년간 배우는 경우에는 교재구성이 잘 합당치 않고 더구나 중·고급에 가서 내용도 다소 심도가 깊지 못하다는 감을 준다. 그리고 한 교실에 적어도 30-40 명 씩 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우리로서는 이 많은 실천훈련을 강의 시간 내에 전혀 학생들에게 시킬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4.1. 중국교재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와 그 해결 방안

4.1.1 중고급교재의 내용에서 앞의 검토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여전히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한다는 의식이 앞섰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정확한 인생관 수립, 간고분투 의식, 선린, 효도, 적선 등 주제가 많다.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거리가 먼 내용이 많으면 공부에 쉽게 흥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제 사회생활에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내용과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더 많이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2 교재 구성이 너무 따분하고 다양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 한국교재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북경대 교재가 일부 탐구를 했는데 잘 한 것이라 본다. 연습문제 형식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학생들의 학습 적극성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학생들이 주동적으로 자주 연습문제를 하고 싶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습문제 유형은 TOPIK 형식을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다.

4.1.3 교재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점.

1) 서술이거나 또는 술어사용이 합리하지 못한 곳이 있다. 예로 북경대 교재에서 语法与惯用型이라 하면 관용형을 문법과 같은 위치에 놓았는데 이는 과학적이 못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른바 관용형이란 한국어문법에 전문 따로 설정한 적은 아직 없다. 임홍빈(1994)에서 도 다만 의존명사, 조사, 조동사 등 부분에서 그에 따라 나타나는 "-르 수 있다, -에 따라, -아 보다 " 등을 서술했을 뿐이지 전문 관용형이란 술어를 내놓은 적은 없다. 최희수 (2005)에서 관용형을 "惯用语是长期的使用过程中被固定下来的短语, 惯用语和其他的固定短语(如: 成语、谚语等)一样, 其结构固定下来不能随意改变, 所表示的意义是不可分割的整体, 它的意义不等于组成它的词语意义的总和."라 설정하여 어휘적으로 쓰이는 "속을 주다" 따위와 추상적으로 쓰이는 "-기 때문에"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두 번째 부류를 주로 논술했다. 여기서 그의 "관용어"에 대한 해석은 종전의 이른바 "숙어, 공고한 단어결합" 등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대폭 쓰이면서 "관용형"에 중시를 돌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결국 조사, 어미, 또는 의존명사, 보조 동사 등이 일부 어휘 혹은 이들끼리 결합되어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자주 쓰이다보니 그 것들을 특별히 강의에 취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것이 관용형이란 명확한 기준도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어 문법 내에 존재하는 일부 독특한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문법과 병렬적으로 이름 달아 놓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2) 연습문제의 이름과 내용이 맞지 않거나 부호사용이 합당치 않는 경우 있다. 예로 <신편중급>에서 词的形态变化아래에 “풍요로움/여유로워/여유로운”, “만든/도는” 이렇게 표기하고 이른바 “ㅂ → ㅊ/ㅌ” 교체와 “ㄹ → ㅇ” 교체를 설명했다. 언어학에서 자주 쓰이는 “/” 부호는 음소거나 형태소 변종을 서술할 때 쓰인다. 예: “-을/를” 그런데 아무 연관이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니 실로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다음 词语例解 라고 하고 “-ㄴ/은/는/을 만큼”, “주를 이루다” 등의 예도 같이 설명했다는데 역시 모순된다.

3) 단어 해석에서 선택 기준이 일정하지 못하다. 예로 북경대 교재에서 词汇活用に “홍수”를 전문 따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原意为洪水, 也可以用来比喻一下子涌来的人或物” 라고 해석하고 “ 그 가수를 보기 위해 소녀들이 홍수를 이루었어요” 라는 예를 들었다. 물론 과문에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비유적인 용법임을 학생들은 얼마든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이므로 구태여 따로 전문 해석을 넣는 것은 “화사침족”인 셈이다.

4) 고급교재에서 어떤 연습문제는 모범답안이 없고 또 그 자체가 아주 옳고 그름을 가리기 힘들다.

예:

* () 안에 들어 갈 수 없는 말을 고르라.

○ 변덕이 심해서 그가 하는 일을 ()기가 어렵다.

a 대중하다 b 짐작하다 c 가늠하다 d 알아보다

○ 말은 적게 하되 ().

a 많이 해도 좋다 b 할 말은 해야 한다 c 행동은 적극 적이어야 한다. d 일은 많이 하라

* 아래의 문장을 순서에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라.

(가) 웬만해가지고는 아예 대학에 진학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 그 모호성이 투명해 보이고, 그 까다로움 때문에 푸는 재미가 느껴져야 한다.

(다) 대학시험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야 한다.

(라) 그래서 보통 학생들에게는 문제들이 당연히 모호하고 까다로워야 한다.

A (다)-(가)-(라)-(나) b (나)-(라)-(다)-(가) c (가)-(다)-(나)-(라) d (다)-(라)-(나)-(가)

5) 연습문제의 난이도가 같지 않다. 예로 중급 (상)에서 “参照词的形态变化, 表示下列词语原形”이라 하고 “왔다, 말했다, 다뤘다. 엄만, 즐거움, 그리움” 등의 단어를 주었는데 이런 것은 이미 중급에서는 아주 쉽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4.2 훌륭한 교재를 편찬한다는 것은 이론의 뒷받침도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부한 실천경험이다. 그리고 교재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면서 수개하는 과정에 잘 다듬어진다. 지금 중국에서 갈수록 질이 좋고 다양한 한국어교재들이 많이 편찬 출판되고 있으며 특히 중·청년 젊은 교사들이 주력군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재 편찬에서 한국 본토 교재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잘 배우는 동시에 어떻게 중국의 특점에도 부합되는 교재를 개발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필연코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질이 좋은 교재가 더 많이 나오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참고문헌과 인용서적 및 국내에서 출판한 한국어 중고급교재:

임호빈 홍경표 장숙인 공저 199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연세대학교출판부

崔羲秀 2005 《韩国语基础语法》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韦旭升 许东振 2006 《新编韩国语实用语法》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任湖彬 洪璟杓 张淑仁 2008 <面向外国人的"韩国语语法">世界图书出版公司

崔羲秀 全龙华 俞春喜 2003 《中级韩国语》(上)辽宁民族出版社

崔羲秀 2003 《中级韩国语》(下)辽宁民族出版社

崔羲秀 2003 《高级韩国语》(上)辽宁民族出版社

崔羲秀 2003 《高级韩国语》(下)辽宁民族出版社

崔羲秀 2008 《新编中级韩国语》(上)辽宁民族出版社

崔羲秀 2007 《新编中级韩国语》（下）辽宁民族出版社

李先汉 金京善 王丹 金正祐 2001 <韓國語> 2 民族出版社

李先汉 金京善 王丹 金正祐 2003 <韓國語> 3 民族出版社

延世大学韩国语学堂 2007 <韩国语教程> 3-6 世界图书出版公司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2002 <한국어중급> 1-2 경희대학교출판부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2003 <한국어고급> 1-2 경희대학교출판부

김성희 외 2009 <서강한국어> 2 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최정순 외 2008 <서강한국어> 2 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김성희 외 2009 <서강한국어> 3 A 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김성희 외 2009 <서강한국어> 4 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김성희 외 2006 <서강한국어> 4 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김성희 외 2008 <서강한국어> 5 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김성희 외 2009 <서강한국어> 5 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93 <한국어> I II 대한민국문화체육부

安炳浩 张敏 编著 2003 《韩国语中级教程》 北京大学出版社

何彤梅 2006 《进阶韩国语》（中级）（高级）世界图书出版公司

金重燮 等著, 金京善 等译 2006 《新标准韩国语》（中级2）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韩国语补习班著, 罗远惠译 2006 《轻松学韩语》（中级1）北京大学出版社

方今淑 2007 《韩国语中级阅读》 北京大学出版社

延世大学韩国语经典教材阅读系列 2007 《韩国语阅读》（中级）世界图书出版公司

文英子 姜银国编 2007 《韩国语泛读教程》（中）上海交通大学出版社

蔡玉子 姜银国 2008 《中级韩国语》上海交通大学出版社

具显祯 等编 2008 《中韩交流标准韩国语会话教程》人民教育出版社

张英美 2009 《基础韩国语》 3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沈贤淑 2009 《基础韩国语》 4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